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 전략 소식지

4권 9호  
2018년 9월

## 8월 주요 활동

### 브룩스 사령관, 안전장치 개선사항 검증 위해 로드리게스 훈련장 방문

8월 15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은 로드리게즈 사격장을 방문하여 사격장의 개선된 안전장치들을 확인, 점검했다. 미 육군 제 3사단 제 1 기갑전투여단 장병들이 당시 사격장에서 한반도에 배치된 순환부대들의 준비태세 강화 훈련 중 브룩스장군을 영접했다. 한편, 브룩스 사령관은 “이제 사격장은 장병들은 물론, 주변 포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캠프 험프리스 방문

지난 8월 9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에서 강연했다. 강연에 참석한 두 사령부 인원들에게 반 전 총장은 주한 유엔군과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유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브룩스 사령관,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8월 22일 한국 주재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브룩스 사령관은 남북한간의 충돌을 억제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재확인 하였으며, 미국과 유엔군 병력파병국 인원들로 구성되어,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주요 요소로서의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브룩스 사령관은, “그러나 아직도 비핵화와 같은 중대한 우려 사안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북한이 취한 조치를 되돌릴 이유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부

### 유엔군사령부, 북한군 유해 송환

유엔군사령부 의장대가 8월 1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군 유해를 북측으로 송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 해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의 시신을 처음 발견하여 이를 북한에게 인계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고 유엔사와 북한군이 북한군 시신 송환을 위한 실무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7월 한국전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에서 송환될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안들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유엔사의 노력이 더해져 이루어지고 있다.

## 8월 주요 방문객

사령부와 우리의 임무 및 부대원들에 대해 알리고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귀빈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다. 다음은 지난달 사령부를 찾아 주신 고위급 방문객이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 8월 9일
- 크리스 스투워드, 미 하원의원 (공화당-유타주) / 8월 9-12일
- 이서영 육군 소장 (예),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 8월 9일

- 크리스 데버렐 육군 대장, 영 합동군사령관 / 8월 14일
- 마이클 맥앤드류, 미 국방부 시설투자관리 담당 차관보 / 8월 18-25일
- 찰스 브라운 공군 대장,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 8월 26-29일

## 피드백

질의, 의견 또는 편집에 관한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십시오](#).